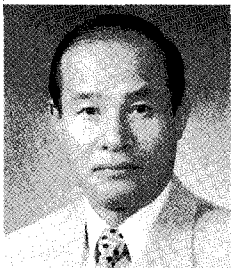


가금티푸스 감염신고, 도태, 보상과정이 공식화 되어야...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 대표/의학박사)

1. 서론

산란계에서 가금 티푸스가 1992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산란계농장에서는 이 질병 때문에 양계를 포기한 사육자가 나올만큼 산란계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고질적인 질병으로 계속 반복감염이 되어왔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대책을 농장별로 실행하였으나, 어느하나 완전한 방제대책은 없기에 농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대응해 오고 있으며, 이에따라 다행히 조기에 근절이 이루어진 농장이 있는가하면 수년동안 고통을 받으며 각종의 근절노력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농장도 있다.

작년부터는 생균, 사균 백신이 사용되어 농장에 따라서는 가금 티푸스 근절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어느 농장은 백신접종에 의해서도 근절이 되지않고 있어 백신접종만으로는 완전한 방제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산란계 농장에서 가금 티푸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육용종계장에서 서서히 가금 티푸스에 감염된 종계장이 증가되면서 육계농장에서도 가금 티푸스에 의한 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가금 티푸스가 활성화되는 계절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근절하지 못하면 산란계농장과 같이 육용종계장 및 육계농장도 10여년 이상을 가금 티푸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끔직한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 가금 티푸스 발생원인

1) 육용종계장의 가금 티푸스 전염 매개물

가금 티푸스는 감염도가 높은 감염계의 계분, 폐사계에 접촉된 매개물에 의해 전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닭어리장 차량은 농장을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가금 티푸스 감염산란 계군을 도태수송후, 닭어리장의 세척, 소독, 건조 과정이 없이 다른 종계장의 계군이동이나 도태작업에 들어갈 때 도태차량은 감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농장에 도태계군 이외의 사육계군이 있는 상태라면, 감염의 기회는 확실하게 주어지게 된다. 다행히 도태계군 한 계군만 있어, 올인 올아웃이 되는 종계장이라면 감염기회는 줄어들지만 만일 도태차량에 의해 와꾸모가 이동되어 진다면, 올인 올아웃이 되어 감염될 계군이 없다하여도 다음에 입식될 새로운 계군에 와꾸모가 가금 티푸스를 감염시킬수 있는 잠재 요인으로 잠복 대기할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종란 수송차량이다. 종란수송차량의 활동범위는 다양하다. 대부분이 병아리 수송후에 종란을 수송하므로 부화장에서 출

발하여 육추 농장에 도착, 출하후에 종란을 수송하기 위해 종계장에 들러 종란을 상차하고 부화장에 도착하는 하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차량이동 과정은 자연스럽게 종계장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난좌 또한 중요한 감염 매개물이다. 물론 최근에는 대부분의 종계장에서 1회용 종이난좌를 사용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실상을 보면 구멍이 있다. 1회용 종이난좌를 사용하더라도 밀반침용으로 프라스틱 난좌가 농장간에 이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은 병원체를 농장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육용종계장은 산란계농장과 연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금 티푸스가 서서히 이러한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육용종계장의 가금 티푸스 문제는



여러해를 거친 누적된 결과로서 자체 육용종계장에서 내재되어있던 것이 육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노출된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외에도 전염경로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차량 (닭어리장차, 종란수송차, 계분차, 사료차, 폐계수거차, 유류 및 가스차 등)
- ② 인원 (접종, 디비킹, 인공수정 등 용역인원)
- ③ 물건 (난좌, 디비커, 접종기, 인공수정기구, 소독기구, 가스통, 벌크사료포대 등)

2) 위탁 종계장의 관리

위탁종계장은 자체 종계장보다 시설면이나 관리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으며 문제발생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잘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감염차단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을 정도이며, 다만 생산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사후약방식 위생관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능장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에는 부화장에서 오염이 확산되어 부화기와 부화장을 오염시키며 자체 종계장의 정상 종란에서 부화된 초생추도 오염시키게 되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특히, 부화장이 자체 종계장과 가까이 있으면 부화장을 통해 자체 종계장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파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오히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문제다.

3) 백세미 농장과의 연결

계열화 회사에서는 백세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백세미의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갈색산란

계는 가금 티푸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체에 감염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열화 회사내의 위탁육용종계장, 자체 육용종계장은 백세미 생산용 갈색산란계 농장과 별 수없이 여러 매개물을 통해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3. 감염 종계군의 대책

1) 단일령 종계군의 종계장

한가지 일령의 종계군만 사육하는 종계장에서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확인후 가능한 빨리 부화는 중지(입란된 종란도 폐기)하고 감염종계군을 도태하여야 한다.

산란계가 감염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도 해볼 수 있지만 종계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계군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설사 항생제 투여나 백신 등으로 가금티푸스가 잠시 억제된다하여도 계군내의 오염도 및 계사 내외, 농장주위의 오염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만성으로 오염된 종계장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게되고 결과적으로 쉽게 가금티푸스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2) 다일령 종계군의 종계장

2가지 이상 일령의 여러 종계군을 사육하는 종계장에서 한계군이나 한계사에서 가금티푸스가 확인되었다면 감염이 인정된 계군이나 계사의 계군을 가능한 빨리 도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나머지 계군의 감염 보균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한다. 현재는 아무런 외부 증상이 없어도 보균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계군이 아직 감염이 안된 상태라면 감염 예방대책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백신, 항생제, 기타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감염 유무를 도태될때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3) 평사사육의 감염 종계군

감염종계군이 평사사육 형태라면 감염도는 케이지보다 훨씬 크며 주변 오염 역할도 심하기 때 문에 더욱 빨리 도태하여야 한다. 도태 후 바닥의 계분과 깔짚은 도태와 동시에 농장 외부로 반출하거나 반출이 어려우면 농장 내에서 발효 열처리로 주변 오염을 막아야 한다. 특히, 계분 및 깔짚속에 살고있는 여러 가지 딱정벌레, 유충 등은 가금티푸스를 다음 계군에 옮겨주는 역할을 하므로 계분 및 깔짚을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4) 와꾸모(닭진드기)의 구제

감염된 농장에 와꾸모가 있다면 와꾸모 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감염 계군에 와꾸모가 있었다면 도태전일과 도태일에 감염계사에 와꾸모 구제제를 처리한다.

계사내 기온이 내려가고 닭이 없으면 계사내의 와꾸모는 하루 저녁내에 다른계사로 이동하므로 닭을 완전 출하하기 전에 감염계사내의 와꾸모를 구제한다.

도태후에도 남아있는 계군에서는 와꾸모 구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도태출하 후의 계사 소독

소독후 공사기간은 육성사는 5주간 성계사는 3주간이상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을때는 최소 3 주간의 소독기간을 정하여 세척, 건조, 소독, 건조, 소독, 입추(입사)전 준비, 소독을 충분하게 실시한다.

도태 후 계분은 가능한 빨리 농장의부로 반출하거나 농장내에서 발효 열처리로 주변의 오염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 소독의 효과는 세척의 상태가 크게 작용하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소독약은 4급 암모니움제, 호름알데히드제, 시안산 나트륨제 등을 병행해서 사용한다. 밀폐 가능한 무창계사는 연막 또는 훈증소독을 이용한다.

또한 세척후와 소독후에 점검을 하여 세척과 소독상태를 점검(시각적, 세균학적 검사)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한다.

6) 새로운 계군의 입사

소독이 완료된 계사에 새로이 입사될 계군은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종류 및 접종 일령은 농장 상황에 따라 정한다. 새로이 입사된 계군이 도태될 때까지는 재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도태될 때까지는 백신접종계군일지라도 가금티푸스 감염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감염된 종란 취급 부화장

가금티푸스 감염 종계군의 종란을 부화한 부화장은 감염종계군의 종란의 입고를 중지하고 부화기 및 부화장 내외의 세척, 소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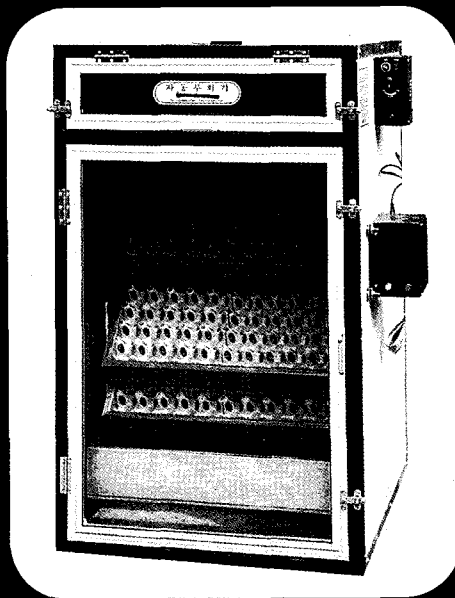
종계군의 감염이 확인된 시점에는 이미 보급된 종란은 오래전부터 부화장에 입고되어 부화장 전체를 오염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하된 초생추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으나 문제가 크지 않으니 초생추에 항생제 주사로 어떻게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면모, 먼지, 난각껍질, 태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화 부산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환풍기의 입, 배기구의 먼지도 제거하고 특히, 발생기위에 쌓인 먼지도 제거하도록 한다. 세척 소독이 이이상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해야 한다.

4. 결 론

종계는 산란계와 달라서 가금티푸스에 감염

이 인정되면 즉시 자발적으로 도태하여야 한다. 현재는 감염신고, 도태, 보상이라는 과정이 공식화되지 못하여 스스로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종계는 과감하게 도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행히 단일령의 계군만 사육하는 종계장은 감염시에도 도태출하 후 쉽게 근절시킬 수 있으나 다일령 계군을 사육하고 있는 종계장은 계획적인 근절대책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기에 근절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감염 보균 지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근절시키는데 필요한 노력과 기간이 힘들고 길어지기 때문이다. 산란계를 통해서 10여년을 경험해 온 것을 보아도 가금티푸스의 근절은 적당히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삼 새겨 보아야 한다. **양계**

은조 자동부화기



● 생 산 품 목

- 소형 부화기----- (제작전문)
- 중형 부화기----- (제작전문)
- 특수조류 부화기---- (주문제작)

● 부화기 종류

닭, 꿩, 오리, 타조, 메추리, 칠면조

● 용 량

- KE- 90(90Eggs) ● KE- 500(500Eggs)
- KE-180(180Eggs) ● KE-1,000(900Eggs)
- KE-300(300Eggs) ● KE-3,000(3000Eggs)

은조상사
(031)575-0759